

공무국외출장(일본) 결과보고서
(2015. 3. 11 -3. 14)

- 일본의 정주지립권 · 도시재생 조사 -
공주 · 부여 · 청양행복생활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15. 3.

지역도시연구부 이상준 · 임형빈 책임연구원

Contents

1	국외연수 개요	1
	1 국외연수 목적	1
	2 국외연수 개요	1
	3 국외연수 주요내용	2
2	국외연수(기관방문) 조사내용	3
	1 나가하마시(일본 정주자립권 관련)	3
	2 가나자와시(일본 지역재생 및 역사·창조도시 관련)	9
3	국외연수(현장방문) 조사내용	14
	1 시라가와고 합장촌	14
	2 오미하치만 보리(인공수로)	15
4	시사점	16

1 국외연수 개요

1. 국외연수 목적

- 공주·부여·청양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에 대한 현장지식 습득
- 일본의 지역재생 및 지역 활성화 사례조사를 통한 효율적 정책추진 방안 모색

2. 국외연수 개요

- 일시 : 2015년 3월 11일 ~ 2015년 3월 14일(3박 4일)
- 지역 : 일본 나가하마시, 가나자와시, 시라가와고, 오미하치만시
- 대상 : 18명(부여군 6, 공주시 5, 청양군 5, 충남발전연구원 2)

기관명	소속부서	직책(직급)	성명	비고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상준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임형빈	
공주시	시정발전연구과	행정6급	신종섭	
	시정발전연구과	지방농촌지도사	김희영	
	기획담당관실	행정7급	류광현	
	산림과	녹지6급	황배만	
	복지시설사업소	공업6급	이소군	
	미래전략담당관	담당관	손기영	
부여군	미래전략담당관	행정6급	이인훈	
	미래전략담당관	행정8급	김상엽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이상석	
	문화관광과	행정7급	강미영	
	가족행복지원실	사회복지8급	박찬호	
	기획감사실	행정9급	윤달수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행정9급	우민희	
	주민복지실	무기계약	전용수	
	산림축산과	녹지7급	김기완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전명제	

3. 국외연수 주요내용

- 나가하마시청 방문
 - 나가하마시의 정주자립권 사업
- 가나자와시 현장 견학
 - 가나자와시 도시재생사업 및 고도관광특구사례 조사
- 시라가와고 방문
 - 시라가와 합장촌 세계문화유산 및 활용방안 조사
- 오미하치만시 방문
 - 도시재생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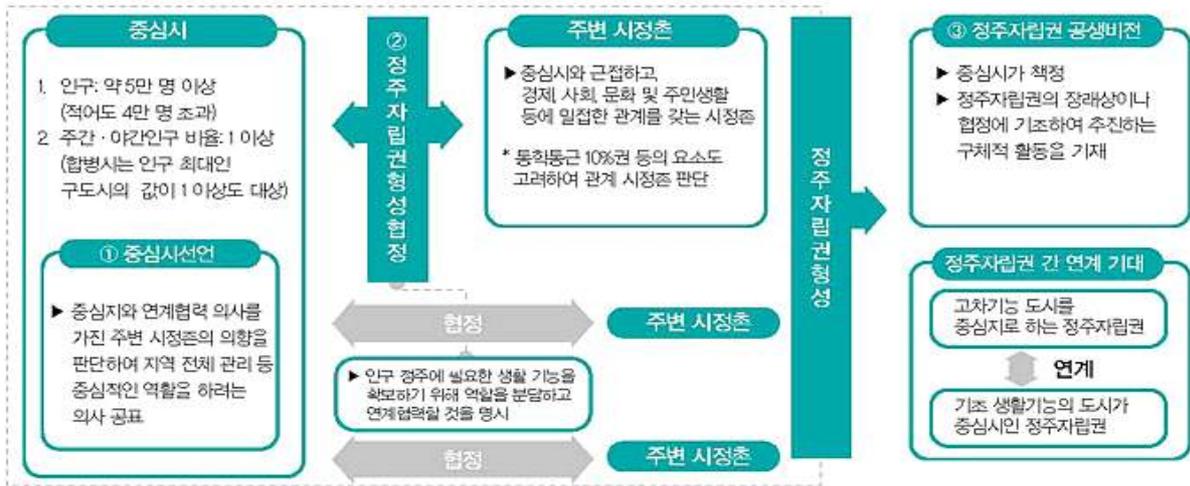
일자	장소	주요내용
3/11(수)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출발(14:10분/OZ114편) ▪ 일본 간사이공항 도착(15:50분 도착)
	쿄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 청수사 - 청수사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사례조사
3/12(목)	오미하치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시 ⇒ 오미하치만시 ▪ 오미하치만시 - 오미하치만시 도시재생 관련 현장방문
	나가하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하치만시 ⇒ 나가하마시 ▪ 나가하마시 - 나가하마 시청 방문
3/13(금)	가나자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하마시 ⇒ 가나자와시 ▪ 히가시차야가 - 고도관광특구사례 조사 ▪ 겐로쿠엔 - 인공정원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 조사
	시라가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자와시 ⇒ 시라가와고 ▪ 시라가와고 - 시라가와 합장촌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사례조사
3/14(토)	나고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라가와고 ⇒ 나고야시 ▪ 나고야시 - 나고야 성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 조사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 공항 출발(19:05분/OZ123편) ▪ 인천 국제공항 도착(21:10분 도착)

2 국외연수(기관방문) 조사내용

1. 나가이마시(일본 정주자립권 관련)

1) 일본 정주자립권 정책 개요

- 정주자립권은 2009년 도입되었으며,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이 연계된 하나의 권역을 중심으로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정주자립권은 중심지와 주변 시정촌 간 “정주자립권 협정”에 기초하여 시행
 -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 간 역할 분담
 - 중심시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집약”하고, 주변 시정촌은 중심지의 집약된 기능과 연계된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함
- 정주자립권에서는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 간의 1) 집약과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2) 권역형성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3)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육성을 도모함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정주자립권은 총 75개 권역에서 시행 중에 있음
 - 전체 시정촌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약 1,700개 시정촌 중 339개 시정촌이 정주자립권 정책에 참여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중심시 선언을 한 중심시는 전체의 약 1/3 수준임
- 정주자립권 협정이 체결된 지자체에 대해 국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특별교부세 중심의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짐 : 중심시는 연 약 1억엔, 주변 시정촌은 연 1천만엔 내외
 - 지원금은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함
 - 외부인재 활용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일본의 정주자립권 구상, 지역과 발전, vol. 13. 2013. p.77.

2)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기관방문 및 토론

① 나가하마시청 방문 개요

-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13:00 ~ 14:20
- 장소 : 나가하마시청 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18명(부여군 6, 공주시 5, 청양군 5, 충남발전연구원 2)
- 면담자 : 나가하마시 기획부 기획정책과, 차장 나카타 시게키(長浜市企画部企画政策課 副参事 中田重樹), 국제교류단체 시민공동추진과 나카지마 등 총 3명



②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정책 개요

- 나가하마시는 구)나가하마시의 나가하마지역(중심지)과 주변 6개 마을지역(도로히계정, 고히쿠정, 다카스키정, 기노모토정, 요고정, 니시아자이정, 주변 시정촌)이 연합하여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권역)” 형성
 - 중심지와 주변 시정촌이 “합병” 하여, 면적 680.79km, 인구수 122,310명, 44천세대로 규모화 도모

様々な圏域の形態

県境を超えて形成された定住自立圏(県境型)

住民の生活実態を踏まえ、**県境の市町村間で圏域を形成**

※いずれの圏域も県境を超えて地域住民の移動(通勤通学等)が存在

中心市名	定住自立圏エリア	圏域での取組例
十和田市・三沢市	青森県・秋田県境	診療所運営事業
大田原市	栃木県・福島県・茨城県境	広域観光の推進、特産品の販路拡大
上田市	長野県・群馬県境	図書館連携事業
鳥取市	鳥取県・兵庫県境	山陰海岸ジオパークを核とした観光事業
米子市・松江市	鳥取県・島根県境	中海(県境の湖)の水質保全
備前市	岡山県・兵庫県境	広域観光ルートの設定
中津市	大分県・福岡県境	圏域コミュニティバス路線新設
磐城市	宮城県・鹿児島県境	休日診療、夜間救急体制維持
大牟田市	福岡県・熊本県境	地域中小企業の振興等

他の圏域と重複する定住自立圏(圏域重複型)

ある市町村が複数の圏域を形成(複数の中心市と連携する近隣市町村)

中心市名	重複市町村
雅内市、名寄市・土別市	浜頓別町、中頓別町、枝幸町
八戸市、十和田市・三沢市	おいらせ町
上田市、佐久市	東御市、立科町
都城市、鹿屋市	志布志市
豊岡市、鳥取市	新温泉町
鶴岡市、酒田市	三川町、庄内町

大規模な市の圏域が他の圏域を包含して圏域を形成

中心市名	重複市町村
延岡市、日向市	日向市、門川町、美郷町、諸塚村、椎葉村

広域的な合併を行った合併市の定住自立圏(合併一市型)

合併1市圏域型

広域的な合併を行った合併市で人口最大の旧市の昼夜間人口比率が1以上のものは、**合併1市で定住自立圏を形成**(人口最大の旧市を中心地域、他の旧市町村を近隣地域とした「定住自立圏形成方針」を策定)

大崎市、由利本荘市、赤松市、上岡市、鶴岡市、山形市、唐津市、湯浅市、旭市、出雲市、浜田市、伊勢崎市、飯沼市、山形市、八支市、雄新市、五島市、新庄市、高松市、豊田市、天童市、湯浅市、佐賀市

2つの市を中心市とする定住自立圏(複眼型)

2つの市が共同して中心市となり、圏域を形成

中心市名
名寄市・土別市
滝川市・砂川市
十和田市・三沢市
中野市・飯山市
米子市・松江市
四万十市・宿毛市

일본 정주자립권 형성 방안

-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형성을 위한 “중심시 선언” 을 “平成22年 11月 29日 (헤세이 22년 11월 29일)” 실시함¹⁾
-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정책은, 1) 동경, 오사카, 나고야 등 인근 대도시 주민의 유입을 확대하고, 2) 나가하마시 인구 유출의 최소화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방향 달성을 위해, 1) 생활기능의 강화, 2)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 3) 권역 관리 능력 강화 등의 3대 연계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있음²⁾

1) 부록 1.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중심시 선언서 참고(나가하마시 홈페이지, <http://www.city.nagahama.shiga.jp>)

- 생활기능 강화에 관한 정책 분야 : 의료, 복지, 교육, 산업 및 관광진흥, 환경, 소방, 화장장 등
-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 분야 : 지역공공교통, 스마트교차로, 지역생산자·소비자 연계시스템 등
- 권역 관리 능력 강화 정책분야 : 인재 양성, 인사교류, 컴퓨터 시스템 공동개발 및 구매 등
- 연계협력분야의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1) 신규사업, 2) 확대사업, 3)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함
 - 신규사업 : 나가하마정주자립권 구성 후 사업 추진(보육사업, 지역의료 지원 시스템, 학교급식센터정비운영사업 등)
 - 확대사업 : 기존 나가하마시가 추진한 사업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한 사업(가족단위지원센터 및 시스템, 예약형 승합 등)
 - 계속사업 : 정주자립권 협정 체결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장애자 복지, 지역의료 연계, 소방, 응급 등)

③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관련 토론 내용

-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소개 : 나가하마시 기획부 기획정책과, 차장 나카타 시게키(長浜市企画部企画政策課 副参事 中田重樹)³⁾

■ 질의응답 :

- 정주자립권 형성의 주요 내용과 목적
 - 인접한 동경, 오사카, 나고야 등 인근 대도시 주민의 유입을 확대하고, 나가하마시 인구 유출의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됨
 - 나가하마시와 주변 6개 마을이 “합병” 하여 하나의 “시” 를 구성하고, 중심지와 주변 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연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3대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목표는 관광객 집객을 위한
- 정주자립권과 관련한 사업의 발굴·건의 절차

2) 부록 2.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형성 방침 참고(나가하마시 홈페이지, <http://www.city.nagahama.shiga.jp>.)

3) 부록 3. 나가하마시정주자립권역구상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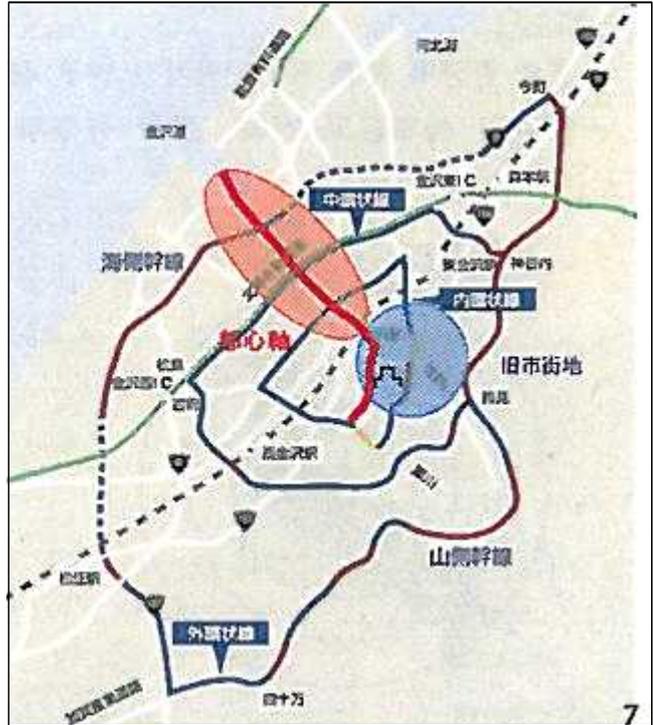
- 행정기관에서 전체 사업을 구상하여 주민들에게 건의하고, 건의된 사업들에 대해 “주민들” 과 협의하여 추진됨
- 실제 지역 내 병원 3개가 있는데, 나가하마시가 이를 재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병원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주자립권 사업에 대한 정부의 참여와 규제 수준
 - 정주자립권마다 각자 사업을 발굴·추진함
 - 중앙정부는 제안서를 검토·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됨
- 정주자립권의 주요 목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 지원금을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은 미수립
 - 단, 애들을 쉽게 맡길 수 있는 레스토랑, 보육원, 탁아소, 의료비 지원 등 지원정책 중심으로 추진 중
- 기존 주거(빈집) 등을 리모델링 활용 시 운영·관리 방식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기구” 에서 위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운영자 섭회, 임대료 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빈집의 활용은 리모델링 하여 호텔 등으로 활용중이며, 빈집의 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운영됨. 일률적인 임대료 계약 형태는 아님
- 정주자립권 정책 추진 시 문제점
 - 나가하마시와 6개 마을 간 합병으로 7개 지역 대표가 생기게 되어, 대표 간 주도권 문제 등 소소한 문제 발생
 -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없음
-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정책 및 사업 평가
 - 중앙정부(총무성)에서의 평가계획은 없음
 - 그러나 나가하마시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보완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가하마시 상점가 활성화 정책의 성공요인
 -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나가하마시 주도로 10년 간 계획을 수립하고,
 - 소상공회의소+주민+기업+나가하마시 등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협의·조정

- 현재 나가하마시에 수많은 마트들이 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은 마트를 이용하고, 관광객만 상점가를 이용함 ⇒ 따라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요 타겟을 처음부터 “관광객”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 나가하마 정주자립권 비전계획상의 산업진흥 계획의 추진 사항
 -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객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나가하마시와 6개 마을 간 합병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체계
 - 기존의 메인 축은 민간전차가 중심이며 작은 버스와 택시로 교통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역사와 정거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음
- 기존의 중심시가기 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 관광객 모객시킬수 있는 시설개발과 정책방향으로 중심시가지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중임

2. 가나자와시(일본 지역재생 및 역사·창조도시 관련)

1) 가나자와시 도시조성 기본방침

- “보존과 개발의 조화” 를 통한 도시조성
 - 가나자와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도시이자, 전통산업과 문화를 보유한 역사적 도시임
 - 따라서, 도시의 발전 방향에서도 역사적 자산의 보존과 새로운 도시의 창조를 위한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보존우선의 구역(파란색 부분)은 가나자와 성, 겐로쿠엔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이며, 개발우선의 구역(빨간색 부분)은 서부 부도심과 도심축임



가나자와시 도시조성 기본구상

- 전통과 창조의 도시조성
 - 가나자와는 유네스코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창조도시 (2009)” 로 선정된 지역으로, 일본 최초의 “경관조례” 가 만들어진 지역임
 -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보존조례((金澤市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保存條例, 1977) 등 다양한 역사문화경관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⁴⁾



히가시야마 히가시지구(2001)

4) 1968년 제정된 전통환경보존조례(金澤市傳統環境保存條例)를 시작으로, 문화재보호조례(金澤市文化財保護條例),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보존조례((金澤市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保存條例), 전통환경보존및아름다운경관형성에 관한조례(金澤市における傳統環境の保存及び美しい景観の形成に關する條例), 코마치나미보존조례(金澤市こまちなみ保存條例), 용수보전조례(金澤市用水保全條例), 옥외광고물조례(金澤市屋外廣告物條例), 사면녹지보전조례(金澤市斜面綠地保全條例), 조망경관보전조례(眺望景観保全條例), 사찰풍경보전조례(歴史的的文化資産である寺社等の風景の保全に關する條例), 야간경관조례(金澤市における夜間景観の形成に關する條例), 가로경관보전조례(金澤市における美しい沿道景観の形成に關する條例 등 다양한 조례가 제정·운영 중에 있음

2) 가나자와시 기관방문 및 토론

① 가나자와시청 방문 개요

- 일시 : 2015년 3월 13일(금) 09:30 ~ 14:00
- 장소 : 가나자와시 금박공예연구소, 히가시야마 히가시지구, 겐로쿠엔
- 참석자 : 18명(부여군 6, 공주시 5, 청양군 5, 충남발전연구원 2)
- 면담자 : 가나자와시 도시정책국역사문화부 역사건조물정비과 호리바 기치로(金沢市 都市政策局歴史文化部 歴史建造物整備課 堀場喜一郎) 등 총 2명



② 역사도시 가나자와 도시조성 정책 개요

- 가나자와의 도시조성의 기본방침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 로, 가나자와성을 “보존 우선 구역” 과 “개발 우선 구역” 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
-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보존조례 등에 기초하여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마을거리 문화재)” 를 지정·운영 중임
 - 2001년 지정된 히가시야마 히가시지구를 중심으로, 2008년 가즈에마치 지구, 2011년 우타쓰야마 산록지구, 2012년 데라마치다이 지구 등이 연속적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기존 빈집 등 민가에 대한

보조금(1집 당 1억 5천만원 수준)을 지급하여 전통적 외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가나자와시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마을거리 문화재)

- 2010년부터 “중요 문화적 경관”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나자와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중 보존과 복원, 전승이 필요한 자원들에 대해, 국가가 선정하는 “중요 문화적 경관” 으로 지정·운영함



가나자와시 중요 문화적 경관(2010년 국가가 선정)

③ 가나자와시 도시조성 관련 토론 내용

- 가나자와시 도시조성 방향 소개 : 가나자와시 도시정책국역사문화부 역사건조물정비과 호리바 기치로(金沢市 都市政策局歴史文化部 歴史建造物整備課 堀場喜一郎)⁵⁾

■ 질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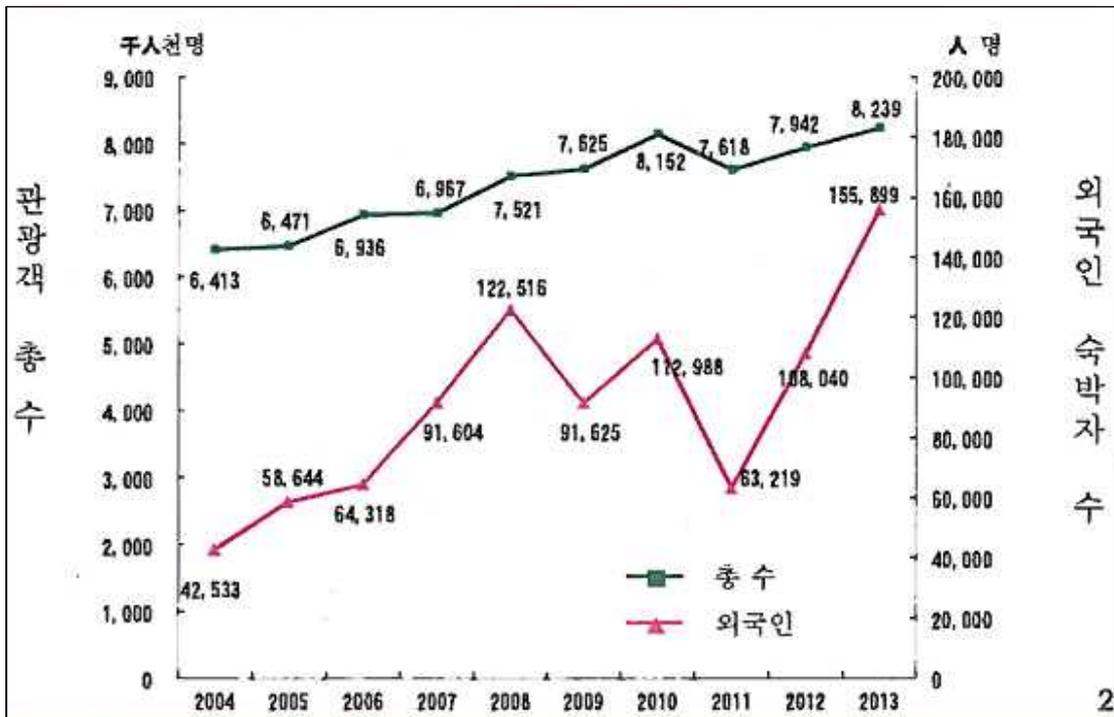
- 가나자와시의 개발의 필요성
 - 국내 전주시와 같이 가나자와시도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임
 - 17C(1890년까지) 에도, 오사카, 교토 이후 4번째로 큰 도시였음
 - 성하마을로는 일본 최고의 도시로, 가나자와에는 성이 남아 있지 않지만, 430년전 “백만석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
 - 더불어 1661년 이후 “도로”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 이러한 역사성 및 자원 등을 결합하여, 가나자와시의 과거를 통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조성 방안
 - 보존지구 형성 및 유지를 위해 15년 마다 한 채당 1억 5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음(이시가와현은 총 700만엔 지급 하는 수준임)
 - 이를 통해 현대식 건물을 전통식으로 복원함
- 가나자와시의 하천 복원의 성과
 - 과거 가나자와시가 보유하고 있던 55개 용수로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었음
 - 이를 복개하여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함
 - 이를 위해 10년 간 주민 설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행정에서 주도함)
- 가나자와시의 창조적 도시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 시민예술촌, 오미초시장, 시이노키영빈관, 21C 미술관 등 역사성을 지닌 건물들을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건물으로 재구성함
 - 형태적 재구성만이 아닌, 기능적 재구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창조성 및 활동 제고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함
 - 특히 21C 미술관의 경우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일본의 3개 건

5) 부록 4. 역사도시 가나자와의 도시조성 참고

조물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음

○ 관광도시로서의 가나자와시 조성

- 다양한 역사자원, 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 2011년 프랑스 미쉐랑(관광가이드 잡지)에 등재되어 별 3개 획득



가나자와시 관광 방문객 추이

○ 공예도시로서의 가나자와시 조성

-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수 많은 공방과 장인 등을 활용함
- 현재 가가유젠, 금박, 칠기 등 전국적인 유명세를 보유한 공방 다수 보유



가나자와시 전통공예

3 국외연수(현장방문) 조사내용

1. 시라가와고 합장촌⁶⁾

1) 시라가와고 합장촌 방문 개요

- 일시 : 2015년 3월 13일(금) 16:00 ~ 17:00
- 장소 : 기후현 시라가와코 고카야마의 갓쇼즈쿠리 마을
- 참석자 : 18명(부여군 6, 공주시 5, 청양군 5, 충남발전연구원 2)
- 내용 : 세계문화유산 시라가와 합장촌 현장방문

2) 시라가와고 주요특징

- 시라가와고는 기후현의 서북단 고산지대에 입지하고 있는 갓쇼즈쿠리 마을임
- 약 45.6ha 면적에 갓쇼즈쿠리 건물 113동(전통건축물 지정건물 109동), 갓쇼즈쿠리가 아닌 건물 329동(전통건축물 지정건물 8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6년 9월 중요전통건축물군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5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갓쇼즈쿠리 건물에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관광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자원의 보존·복원에 주안점을 둘 뿐, 다른 지역과 같이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역사지구로서의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갓쇼즈쿠리 건물 내부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거의 생활모습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소규모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갓쇼즈쿠리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마을 전체의 모습을 최대한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보존·재현하고 있음

6) 손바닥을 맞댄 것처럼 지붕의 경사가 급한 주택이며 총 89동의 목조건물로서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물임



갓쇼즈쿠리 건물 전경



갓쇼즈쿠리 건물 내부 전시물

2. 오미하치만 보리(인공수로)

1) 오미하치만 보리(인공수로) 방문 개요

-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10:00 ~ 11:00
- 장소 : 일본 시가현 중부 비와호 동안에 위치
- 참석자 : 18명(부여군 6, 공주시 5, 청양군 5, 충남발전연구원 2)
- 내용 :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례 조사

2) 시라기와고 주요특징

- 하치만보리는 비와호 인근 지역을 연결하던 운하를 활용하기 위한 인공수로임
- 인공수로를 활용한 상거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지만, 1950년 대 이후 도시화, 교통발달 등으로 인한 인공수로 이용성이 급격히 저하됨
- 이에, 1980년대 이후 하치만보리 시민들 스스로 “수로를 매립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제히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재는 사진과 영화, 관광 등으로 연 간 60만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음
- 오미하치만 보리(인공수로)는 주민스스로 지역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



4 시사점

1)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필요

- 정주자립권 정책은 필요한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내 생활권 정책에서도 이러한 원칙의 준용이 필요함
 - 연계협력이 필요한 지자체만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용자세, 사업 발굴 및 추진 과정 등이 명확함
 - 정주자립권별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높음
- 정주자립권 및 지역재생 성공을 위한 행정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 참여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책 수용 및 계획수립,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기관의 전문성 제고, 정책적 일관성 유지 등이 중요함
 - 행정기관을 통해 수립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의 협의와 동의, 사업 참여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하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을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로의 중장기적으로 책정하여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에 대한 지원책 보완 필요

- 정주자립권 및 지역재생에서 모두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 민간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두 정책 모두 특성 상, 지역주민, NGO, 민간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참여의 확대, 사업의 다양화 및 지역적 차별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명확화
 - 정부의 역할은 정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제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기구 역할로 한정함
 -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